

“전북, 한국체협 1번지로”

6·13 지방선거... 송하진 도지사 후보, 관광지 경쟁력 강화 등 문화관광정책 발표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가 “전북을 한국체협 1번지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송하진 전북지사 후보는 30일 ‘문화ICT융합 여행체협산업, 토탈관광, 한국체협 1번지로 부상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



화관광정책에 대한 공약 자료를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10개의 세부실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경쟁력 강화 ▲고산군도 명품섬 만들기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관광벤처 육성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전북 컬링장 건립 ▲전북 가야 연구 발굴 및 종합정비 등이다.

이밖에도 송 후보는 농산어촌 마당

캠프 활성화사업과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전북은 청정하천과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등의 산림자원, 그리고 천혜의 갯벌과 해양레저가 가능한 바다를 가지고 있다”며 “민선6기에 시작된 14개 시·군 대표관광지의 지속적인 육성과 전북투어패스를 연계한 관광벤처창업 등은 새로운 여행체협산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우원식 민주 공동선대위원장, 송 후보 지원차 전북 찾아

군산·부안 등 4곳서 후보자들 승리 다짐 디자인 씽킹 테이블 성료

장인상 중인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를 대신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 원내대표)과 안호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군산과 부안, 고창, 정읍 등 4곳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다짐했다.

특히 송하진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안호영 의원 등은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군산 등 4곳 단체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송하진 후보의 전북발전 대도약을 위한 지역 주민 여론수렴장인 ‘디자인 씽킹 테이블(Design-Thinking Table) 현장을 돌며 민주당의 승리를 호소했다.

당초 송하진 후보가 모두 참석하기 못했지만 장인상을 당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송 후보를 대신해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안호영 상임선대위원장이 지역 현장을 찾게 됐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 곳에 왔다”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 하나 챙겨 전북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어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송하진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든 후보가 송 후보와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송 후보의 독주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상임선대위원장은 “우리당



30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6·13 지방선거 군산시장으로 출마한 민주당 강민준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모든 후보가 더 단단히 손을 잡고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어나가야 한다”며 “송하진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가 모든 후보의 승리로까지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송하진 후보는 지난 24일 후보 등록 후 김제와 무주, 장수, 남원, 순창, 임실 등을 순회하며 ‘전북 대도약 디자인 씽킹 테이블’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8일에는 송 후보를 대신해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이 전주를 찾은 바 있다.

한편 ‘전북 대도약 씽킹 테이블’은 송하진 후보의 도정 혁신 의지를 선거운동부터 반영하기 위해 14개 시·군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군산시, 고용위기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본격 확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퇴직자 및 구직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군산시는 30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MOU를 체결하고, 국비 23억 4000만원을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 개소할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는 군산시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참여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예정)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뉴시스

오늘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

전북선관위, 내달 12일까지...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려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과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식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아울러 단체장(교육감 포함)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구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 배부

할 수도 있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당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오늘부터 선거 벽보... “찢거나 낙서 안돼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인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거짓된 내용은 누구나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선거벽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내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변동률 5.52%... “이의신청은 7월 2일까지”

전북도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52%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6.28%보다 낮은 편이다.(2017년 변동률 4.75%)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토지는 총 267만9,000필지이며 (도 전체 필지 377만9,575필지의 71%), 도내 평균지가는 1만3,570원/㎡로 전주시 완산구가 평균 18만1,149원/㎡로 가장 높고, 장수군이 평균 2,268원/㎡로 가장 낮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 690만원/㎡, 최저지가는 무주군 적삼면

방이리 임야 187원/㎡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7.77%)이며,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1.14%)로 나타났다. 그 외 무주군(7.57%), 완주군(7.50%), 진안군(7.34%), 순창군(7.22%), 전주시 덕진구(7.07%), 등이 상승률이 높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 구도심 재건축과 혁신도시·에코시티·만성지구 아파트 건설, 각종 택지개발 및 관광지 개발, 전원주택지 조성 등이며, 일부 시·군의 경우 지가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그동안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전라북도 홈페이지 토지정보(<http://ktis.jonbuk.go.kr>) 또는 일사관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onbuk.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 및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등을 활용하여 결정지가를 확인 후 7월 2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도, 4월 저온 피해 정밀조사 내달 20일로 연장

전북도는 지난달 7~8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저온피해 증상이 외관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농업인들이 뒤늦게 피해를 인지하는 사례가 있어, 6월 이후에도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의 건의에 따라 농식품부가 이를 반영하여 연장하게 되었다.

지난 29일 현재 저온피해는 총 4,007농가에 2,556.9ha로 집계되었고, 주 피해 작물은 사과(804.6ha), 인삼(797ha), 배(360.6ha)이며, 주 피해 시군은 장수군(808ha), 진안군(804ha),

무주군(549ha) 순이다.

저온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평균 3배 인상)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가 지원되어 피해 농가의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가단위 피해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비, 고용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